

# ‘파리의 심판’ 50주년... 진판델부터 알바리뇨까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4

1976년 당시 와인 양조 역사는 100년 정도 됐지만 전 세계 와인 시장에서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샤르도네 같은 국제 품종은 많이 재배되지 않았다. 레드 와인을 만드는 진판델이 주로 재배됐고, 이외에는 스페인 선교사들이 들고온 토착 품종 정도가 자라고 있었다.

설명만 듣고 보면 전 세계 와인 산지 가운데 어느 곳인지 짐작도 못 할 터. 답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다.

반전의 시작은 1976년 파리에서 열린 ‘미국 건국 200주년 기념 블라인드 테이스팅’, 이른바 ‘파리의 심판(Judgement of Paris)’이다. 명성을 가리고 맛으로만 평가했더니 ‘샤또 무통 로칠드’ 등 세계 최고로 평가받던 프랑스 와인들을 제치고 캘리포니아가 레드와 화이트 와인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와인 종주국 프랑스는 물론 전세계 와인 업계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올해로 파리의 심판이 열린지 딱 반세



미국 대표 와인 작가이자 교육가인 일레인 추칸 브라운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캘리포니아와인협회(CWI)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파리의 심판’ 사건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와인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게 된 배경과 그 이후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기가 지났다.

미국 대표 와인 작가이자 교육가인 일레인 추칸 브라운(Elaine Chukan Brown)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캘리포니아와인협회(CWI) 주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파리의 심판 덕분에 캘리포니아 와인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파리 테이스팅의 유산(The Legacy of the Paris Tasting)’ 세미나에서는 총 10종의 와인이 선보였다. 왼쪽부터 갤리카 로릭 헤리티지 알바리뇨 2019, 알마 드 카틀레야 소비뇽 블랑 2024, 프리마크 아비 샤르도네 2023, 샤또 몬텔레나 나파 밸리 샤르도네 2020, 허쉬 이스트 릿지 피노 누아 2019, 테라 와인 컴퍼니 바르베라 2024, 카민스 투 드림즈 그르나슈 2023, 마야카마스 까베르네 소비뇽 2003, 스탱스 랩 S.L.V.까베르네 소비뇽 2016, 랑게 트윈스 센테니얼 올드 바인 진판델 2017. /안상미 기자

전 세계 최상급 와인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날은 국내에 수입되는 캘리포니아와인과 미수입 와인까지 총 340여 종의 와인이 선보이는 ‘캘리포니아 와인 얼라이브(Alive) 테이스팅 2026’도 진행했다.

먼저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할 타이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품종으로 보면 까베르네 소비뇽과 샤르도네 와인으로 승부를 겨룬 파리의 심판을 말하며 진판델과 알바리뇨를 전면에 내세웠으니 말이다. 특히 알바리뇨라면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되는 것을 아는 이조차 극히 드물다.

일레인은 “파리의 심판을 계기로 생산자들이 캘리포니아의 잠재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품종을 탐색하기 시작했다”며 “이전부터 재배한 진판델을 시작으로 파리의 심판을 거쳐 새로운 세대가 알바리뇨 와인을 만들어냈다고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파리의 심판 50주년을 기념하는 테이스팅의 시작은 ‘갤리카 로릭 헤리티지 알바리뇨 2019’다.

일레인은 “스페인의 해안가에서 자라던 알바리뇨를 캘리포니아 내륙의 고산 지대로 가져왔다”며 “생산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품종을 어떻게 탐구하고 개발시켜 왔는지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알마 드 카틀레야 소비뇽 블랑 2024’

과 ‘허쉬 이스트 릿지 피노 누아 2019’, ‘테라 와인 컴퍼니 바르베라 2024’, ‘카민스 투 드림즈 그르나슈 2023’ 등도 모두 캘리포니아만의 특색을 갖추고 양조됐다.

역전의 주인공, 까베르네 소비뇽과 샤도네이도 마시지 않고 넘어갈 순 없다. 파리의 심판 화이트 와인 1위 ‘샤또 몬텔레나 나파 밸리 샤르도네’와 레드 와인 1위 ‘스탁스 랩 S.L.V.까베르네 소비뇽’이다.

‘샤또 몬텔레나 나파 밸리 샤르도네 2020’은 과실향이 풍부하면서도 입안에서 단단하게 조여오는 산도가 살아있다. 1973년 당시의 양조 방식을 그대로 고수 중이다.

‘스탁스 랩 S.L.V.까베르네 소비뇽 2016’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정밀하다. 과실미와 균형있는 산도, 벨벳같은 질감까지 딱 떨어진다. 2016년이 나파밸리 역사상 최고의 빈티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좋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레인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샤도네이를 경작하는 곳은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 정도였지만 이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 됐다”며 “파리의 심판이 남긴 유산은 전세계에 영감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주말은 책과 함께

### 메가박스,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단독개봉

베스트셀러 그림책,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

메가박스가 차별화된 뮤지컬 콘텐츠로 관객 확보에 적극 나선다.

메가박스가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의 투자·배급을 맡아 전국의 가족 관객을 사로잡고, 뮤지컬 콘텐츠 흥행을 이어간다는 목표를 5일 밝혔다.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은 백희나 작가의 베스트셀러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가족 뮤지컬 실황 영화다. 낡고 오래된 동네 목욕탕 ‘장수탕’에서 주인공 덕지가 선녀 할머니를 만나며 펼쳐지는 특별한 하루를 그린다. 유쾌한 상상력과 따뜻한 정서를 바탕으로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실황 영화로 재탄생했다.

무대의 현장감을 충실히 살리면서도 섬세한 카메라 워크와 편집을 통해 영화적 호흡을 더했다. 관객들은 기존 공연장에서는 보기 힘든 배우들의 세밀한 연기와 감정선, 그리고 배우들의 시선을 포착한 시야까지 1열 중앙에서 보는 듯한 체험으로 작품을 더욱 깊게 관람할 수 있다.

메가박스는 앞서 ‘영웅: 라이브 인 시네마’, ‘엘리자벳: 더 뮤지컬 라이브’,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 등 국내 대표 뮤지컬 실황 영화를 단독 수급, 상영해 기존 뮤지컬 관객뿐만 아니라 영화 관객까지 끌어당기며 연이은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대통령의 야누스 리더십을 말하다

출생에서 대통령까지, 이재명 리더십 비판의 교과서 같은 책이 출간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진짜 이재명 진짜 이재명’을 펴냈다.

저자는 비판적 평전, 니체 관점에서 이재명 정치와 리더십을 낱알이 파헤쳤다. ‘이재명 정치’는 6년간의 소년공 생활에 기초를 두고 형성됐다. ‘이재명 리더십’은 니체가 말한 것처럼 때로는 무지막 지한 초인이기도, 권력의지의 화신이기도 하다.

6년간의 소년공 생활은 이재명 권력의지의 원천이다. 기득권에 대한 분노와 출세하겠다는 집념은 이재명을 최후의 정치적 승리로 이끌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도입했던 무상 교육, 무상 산후조리원, 청년 배당의 뿌리도 소년공 생활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노동 중시, 증시 부양도 현실의 이익을 중시하는 소년공 체험에서 파생한 정책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대한민국 1등이다. 그의 권력의지는 현재 누구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세고, 과거 박정희와 견줄 만큼 강하다. 이재명은 박근혜도, 윤석열도 끌어내렸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을 힘으로 파악한다. 선출 권력 위위론은 이재명 정치와 리더십의 핵심이다. 니체의 권력량이 위계를 결정한다는 통찰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 이재명의 리더십은 야누스의 모습이다. 국정과 혁명이, 복수와 정의가 혼재되어 있다. 이재명은 빛의 혁명을 꿈꾼다.



진짜 이재명 진짜 이재명

엄경영 지음/아마존북스

이재명에게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은 1894년 동학혁명, 1980년 5·18, 2016년 12월 촛불혁명과 궤를 같이하는 빛의 혁명이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재명의 빛의 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도 이재명의 권력의지는 멈추지 않는다. 포스트 권력의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저자는 이재명 정치와 리더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의 내면세계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와 국정 기조에 반영되는지 꼼꼼하게 따진다. 이 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와 리더십을 해부하기 위해 니체의 초인, 권력의지 관점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또한 독자들에게 대통령의 야누스 리더십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

320쪽, 2만원.

/윤휘중 기자 yhj@

### CJ문화재단, ‘스토리업’ 단편영화 제작지원 공모

오는 23일까지 모집... 앤솔로지 제작 등 예정

CJ문화재단이 신인 영화 창작자 지원사업 ‘스토리업’의 단편영화 제작지원 부문의 2026년 지원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CJ문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2006년 설립되어 대중문화 소외영역의 젊은 창작자들이 성장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CJ문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존에 진행해 온 ‘스토리업’ 단편영화 제작지원 공모에 새로운 형식을 더한 ‘앤솔로지 프로젝트 2026 스토리업 단편영화 공모’를 통해 변화를 시도한다. 공모 주제를 제시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단편영화가 보다 입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추후 최종 제작지원작 6편을 하나의 앤솔로지(합작물) 형태로 묶어 극장 개봉 및 OTT 배급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미 민주당, 텍사스주 예비 선거 투표자 공화당 처음 앞서 /사진 뉴시스
- ▲“트럼프 아들·김정은 딸 결혼시키려”...중동 전운 속 황당 ‘세계평화 밈’ SNS 화제

- ▲통상본부장, 메르코수르와 경제·통상 협력 확대 논의
- ▲‘기지 사용 갈등’ 美·스페인, ‘군사 협력’ 진실 공방 또 충돌

- ▲말레이시아서 브레이크 고장 열차 질주...주민들 기지로 대형 참사 막아
- ▲정부, ‘美쿠팡 주주 ISDS’에 로펌 선임...피터 앤김·아놀드앤포터